

주제: 국내/외 기업들의 FAAF 참여 독려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아포코(AFoCO)의 활동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60초 이내 영상



**# 제출물은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 1. Background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아포코)는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산림분야 아시아 역내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 \* 국제적 합의(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다.

회원국은 17개 참여국(당사자 15개국, 옵서버 2개국) \* 당사자(Party) 15개국: 한국, 동티모르, 몽골, 부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태국, 필리핀이 있다. \*옵서버(Observer)2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포코는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기여하고 산림을 통한 기후 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함께 2024년 2월 6일 기후행동 협력플랫폼인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를 런칭하고 제 1회 포럼을 개최했다.

FAAF는 매년 정기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ESG 등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산림탄소사업이나 나무심기 등 기업의 관심과 아시아 국가의 니즈를 연결하는 다양한 산림부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2. The Challenge

- 10년간 이루어질 기후액션 플랜은 막대한 민간자본 투입이 필요한 상황
- 산림기반 또는 자연기반해법(NbS)은 공공과 민간의 행동이 필요한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좀 더 즉각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아포코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단순하고 강력한 이미지의 부재 →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이미지 필요

### 3. Target Audience

- FAAF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
- ESG, 산림탄소사업, 비탄소사업(비목재 임산물, 역량강화, 캠페인 등)에 관심있는 국내/외 기업

### 4. Insight

FAAF는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으로 ▲ 아시아기후 리더십 선도 ▲ 산림탄소사업과 NbS 이행을 통한 아시아지역 연간 메가톤 탄소 감축 ▲ 기업의 ESG 활동과 국가 니즈를 연결하여 공유가치 창출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액션 위주의 활동을 연간 추진할 계획임. (FAAF 뉴스레터 발췌)

“사실 기후위기 해결은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이기주의가 있어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지자들의 표심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기업이 자발적, 선도적으로 SDG를 기업의 목표와 전략, 활동에 접목시킨다면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40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유한킴벌리란 기업을 알리기위해 홍보 비용을 많이 쓰던 때였다.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한킴벌리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는 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FAAF 공동 위원장 문국현 대표 인터뷰)

“AFoCO는 회원국들과 약 43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제는 AFoCO의 장점을 잘 살려서 기업이 기후변화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에 AFoCO는 기업을 도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기업이 원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FAAF 공동 위원장 문국현 대표 인터뷰)

“일단 기업들은 AFoCO를 통해 FAAF란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 기업이 혼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AFoCO의 기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르며 또 전문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FAAF 공동 위원장 문국현 대표 인터뷰)

## 5. Key Message

-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기후 위기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 기후변화와 탄소 감축을 위해 산림의 역할에 정부와 민간자본의 투자가 시급하다

## 6. Support to the Brief

- 기구 홈페이지: [AFoCO |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focosec.org\)](http://afocosec.org)
- 기구 디지털 브로셔: <https://afocosec.org/intro/>
- 기구소개영상: <https://youtu.be/YEFdotd9OIs>
- AFOCO ACTION PLAN 티저: [https://youtu.be/y\\_cEJfuUSjY?si=KLxTRa5Z6RpgQI\\_9](https://youtu.be/y_cEJfuUSjY?si=KLxTRa5Z6RpgQI_9)
- AFOCO 비주얼 가이드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vwN9Rkt\\_9-o8T1TJCxvWQdss8lrWqB1?usp=sharing](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TvwN9Rkt_9-o8T1TJCxvWQdss8lrWqB1?usp=sharing)
- FAAF 티저: <https://youtu.be/lxbPLQ71YCY>
- FAAF 포럼 스케치 영상: <https://youtu.be/LI4U9nj0vfY>
- [아포코 활동 중점 분야] 참고
  -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맹그로브, 건조지, 산불피해지 등)
  - 산림탄소 축적 증진(REDD+, 조림, 바이오차, 혼농임업)
  - 산림탄소 MRV 역량 강화(인공위성, 드론)
  - 커뮤니티 비즈니스(비목재 임산물, 생태관광) 및 사회적 임업(공동체 산림관리)
  - ICT 기반 산림재해 완화(산불 및 산사태)

## 7. Specific campaign deliverables

Each team will be submitting one final film ad.

This must include:

**1. one 60-second film/video in English (mp4 format)**

**2. a three-part written submission(PDF Format):**

- offering a short summary of what happens in the film (150 words)
- explaining the background of the idea – an overview of the brief and the objectives the client is reaching (150 words)
- describing the strategy and insight – how the film answers the brief, target audience and the insight that informs the work (150 words).

**※제출물은 하나의 폴더에 저장하여 압축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